

노후 걱정없는 100세 도시 광주 노인회관 문 열어

74억 들여 지하1·지상4층 규모
치평동 신축 노인회관 개관식
일자리·경로당지원센터 등 입주
사회참여·체육 등 프로그램 운영



28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신축된 '광주시 노인회관 개관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오병채 광주시 노인연합회장 등 내빈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20만 광주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노인회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신축된 광주 노인회관에는 그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노인 관련 기관이 모두 모이게 돼 광주 노인복지의 거점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8일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옆에 있는 노인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회관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서 이용섭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로부터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남구 서동에 있던 기존 회관이 1981년 건립돼 안전, 공간 부족, 교통 편의성 등 문제를 겪어 신축을 추진했다. 74억원을 들여 건립한 새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81㎡ 규모다. 어르신 이용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문화·상업 중심지인 상무시민공원 인접지를 선택했다.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노인취업 지원센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노인 복지 서비스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일자리와 취업상담 등 어르신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버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리스타 교육장을 1층에 운영한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지역 1300여개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노인회관 2층에는 야외 게이트볼장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는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그라운드 골프, 한궁, 바둑, 배드민턴 등 각종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해마다 각계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해 교양, 건강관리 등 다채로운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노인 지도자 대학도 운영한다.

오병채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오래 숙원사업이었던 노인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준 광주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 많은 분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노후 걱정 없이 당당하고 기쁨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부권 노인복지시설 건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고령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어르신들께서도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힘과 지혜를 보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역혁신클러스터 평가 전남도 우수 등급 받아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혁신클러스터 비R&D사업 1단계 성과 및 1.5단계 계획평가'에서 전국 14개 지자체 중 상위 3개 지자체에 주어지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우수 등급을 받아 기업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이 당초보다 10% 늘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3년간 에너지신산업 대표 산업으로 선정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1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전남지역 에너지 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도록 지난해 6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나주 일원에서 합평, 영광, 장성 일원으로 확대했다.

또 지역 R&D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획 29건을 발굴해 7건의 사업 수주, 282억원의 예산 확보 실적을 거뒀다.

전남 에너지기업 협의회 구성·운영, 에너지기업 해외시장 진출(ODA) 지원 등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다른 사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올해부터 120억원을 들여 국가혁신클러스터 1.5단계(2021~2022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한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글로벌 연계,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기업 협의회 확대 운영, 에너지기업 해외시장 진출(ODA)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많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토록 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광주비엔날레 임직원은 전시에 전념해달라"

"내부 갈등 유감...비엔날레 종료되면 사실관계 파악해 조치"

광주시가 내부 인사 문제로 잡음(광주일보 2021년 4월 27일자 2면)이 일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8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임직원은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에 전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고 금년에도 기간을 줄여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최하고 있다"며 "3년 만에 개최되는 국제행사 기간에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인사 등 재단 운영과 관련해 대표와 직원, 노조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제13회 비엔날레가 5월 9일 종료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혁신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지금은 국내외 이목이 비엔날레 전시에 쏠려 있는 만큼 임직원이 합심해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4월1~5월 9일)가 진행 중인 가운데 비엔날레 재단 내부에서는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 갑질 등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아마존 브랜드관' 세계시장 확대 나서

캐나다·EU·영국·인도까지 확장
입점기업 등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

전남도가 28일 올해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연간 수출 500만 달러 달성과 캐나다, EU, 영국, 인도까지 입점 확장 목표를 위해 입점기업 등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위탁 운영사인 미국 크리에이티브, 광주전남코트라지원단,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크리에이티브는

한국과 영국, 독일, 중국에 지사를 둔 아마존 기반 마케팅·유통판매 전문기업이다. 한국의 홍삼과 화장품 등 1000여 개 제품을 판매하며 연매출 3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2020년부터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과 함께 전남 수출기업 제품의 아마존 입점과 마케팅, 판매, 주문·재고·고객관리, 대금 정산까지 미국 내 온라인 총괄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개설 10개월째를 맞아 추가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확대를 통해 2021년 수출 500만 달러 달성과 브랜드관의 전 세계 확대 진출 등 목표를 입점 기업과 공유하

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2021년 브랜드관 입점기업 지원 계획 ▲코트라의 제3국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안내 ▲효과적인 온라인 공동물류시스템 ▲캐나다·EU·영국·인도 시장 분석 및 확대 계획 ▲아마존 마케팅의 필요성 및 추진전략 ▲아마존 브랜드관 입점 성공사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미국 아마존을 넘어 영국과 EU, 캐나다와 인도 아마존에 진출하기 위해 '전라남도' 상표 출원을 모두 마쳤다"며 "올해 아마존을 통해 수출 500만 달러를 달성하고,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친환경 농수산물과 한국음식(K-Food) 전문 대표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업박물관 DB 등 6개 공공데이터 구축 공모 선정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6개 사업(사업비 12억원)이 선정됐다.

디지털 뉴딜 공모사업인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사업은 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행정·공공기관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기업을 매칭, 기업에 예산을 지원해 대민서비스를 위한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청년인턴은 공공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해 데이터의 생산, 가공,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행안부 주관으로 오는 5월 모집해 전문교육과 평가를 거쳐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별 데이터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선정 사업은 ▲전남도의 농업박물관 소장품 DB 구축 ▲전남관광재단의 전남 관광지 드론 영상 DB 구축 ▲여수시의 면역력 관광상품 개발과 로컬푸드 DB 구축 ▲나주시의 팜랩 기반 드론 정밀 영상 조사를 통한 나주시 농작물 재배 현황 디지털 지도 DB 구축 ▲광양시의 공인 정보 DB 구축 및 오픈 API 개발 ▲곡성군의 문화재 및 향토정보 DB 구축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명장관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은 전문지식을 갖춘 청년 등의 지역 일자리를 늘리면서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역 데이터 기업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데이터를 가공·활용한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청년 일자리위원회 활동 15명 구성...정책·해법 모색

광주시 청년 일자리 위원회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백경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 연구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방향과 내용 등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기업인, 활동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간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 사항을 심의한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일자리 문제"라며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실현을 최우선의 시정목표로 삼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지원을 위해 지난 1월 행정부시장 직속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광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